

여수산단, 바이오화학 인증 인프라 구축...친환경 전환 거점

220억원 투입 시험·평가·인증 원스톱 체계 생분해시험기준 변화 대응...비용·시간 절감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바이오화학 분야 시험·인증 기능을 통합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9일 여수 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여수 바이오화학 시험인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의 시험·평가·인증을 지역에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센터는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033㎡ 규모로 조성됐다. 생분해 시험과 바이오매스 분석 장비를 갖추고 제품 시험부터 평가, 인증, 컨설팅까지 전 과정

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외부 시험기관에 의존해왔던 지역 기업들이 겪어 온 시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글로벌 환경 규제 변화에 대응한 시험 체계를 갖춘 점이 핵심이다. 기존 고온 퇴비화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상온 토양 등 실제 자연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생분해도를 측정하는 맞춤형 시험이 가능해졌다. 국제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지역에 구축됐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증까지 전 과정을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전남도는 9일 여수 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여수 바이오화학 시험인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소재 전환과 수출 대응에 필요한 기술 검증 체계가 확보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

업국장과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관·경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센터가 화학산업 구조 전

환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은 "여수산단은 전남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기반"이라며 "센터가 탄소중립과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환경 속에서 산업 전환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수준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센터를 기반으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해 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 기술과 고부가 소재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는 전략을 통해 여수산단을 글로벌 친환경 화학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지난 8일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고희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이남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내달 31일까지 '광주화루' 작가전

총상금 9000만원 규모 전국 최대 한국화 공모전
양지오 작가 '대상'...이이남 미디어아트 전시도

광주은행은 광주화루 공모전 수상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8일 본점에서 정일

선 광주은행장과 고희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이남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광주화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시 개막을 알렸다.

전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 아트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최대인 160여 명의 작가가 지원했으며 양지오 작가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민범 작가, 우수상은 김비로·조세랑·조현수 작가가 수상했으며 고은주·곽아람·남기승·한승희·현덕

식 작가가 입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0만원(1명), 최우수상 2000만원(1명), 우수상 각 1000만원(3명), 입상 각 200만원(5명)의 상금과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광주화루는 광주은행이 2017년부터 운영해온 문화사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한국화 공모전으로 성장했다.

이번 전시에는 수상자 10인의 작품 20점과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 '산수극장'도 함께 선보인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시, 외식업 경영혁신 컨설팅 추진

30일까지 모집...메뉴 개발 등 25개소 선정 지원

광주시에 경기 침체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체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2026년 외식업 경영혁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외식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체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컨설팅은 △경영 진단 △메뉴 개발·개선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마케팅 전략 수립 △매출 증대 방안 제시 등 업소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외식업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홍보 전략 지원

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 외식업체의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0일까지 각 자치구 위생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업소 규모와 영업기간, 위생 관련 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5개소를 선정하고, 다음달 4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박정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식업체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외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외식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가계 여웃돈 270조 역대 최대...주식·펀드 급증

한은 "지출 대비 소득 증가·아파트 신규입주 감소 등 때문"

지난해 지출보다 소득이 더 늘고 아파트 신규 입주자 줄면서 가계의 여웃돈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기업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를 줄이고 자금을 적게 끌어 썼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26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5조5000억원)보다 54조원 이상 늘어 2009년 해당 통계 편제 이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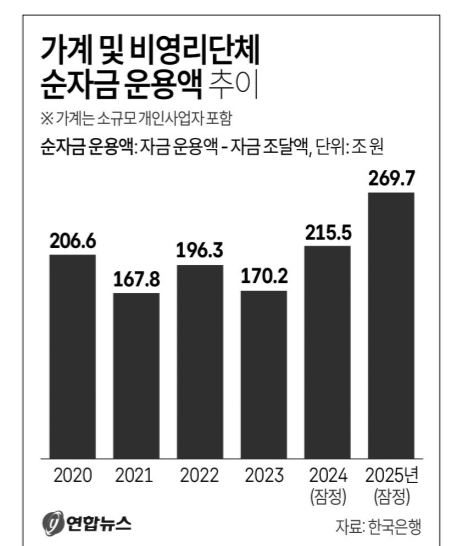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유용)인 상태에서 여웃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가계의 여웃돈(순자금 운용액) 증가 배경과 관련해 "지출 증가 폭을 웃도는 소득 증가와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작년 자금 운용 규모(342조4000억원)도 2024년(248조8000억원)보다 약 100조원 가까이 불었다.

특히 국내외 자본증권·투자펀드 운용액과 보험·연금 준비금이 각 106조2000억, 87조1000억원 늘었다.

김 팀장은 "가계·비영리단체 자본증권·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2021년 119조



광주조달청-시산융합사업단 혁신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9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AI 기업 발굴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기업 발굴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AI 기반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등록 및 판로 확대 지원, 공공기관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 AI 기업 대상 조달제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조달청은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해 유망 AI 기업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기술력 있는 기업 발굴과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최대 400만원 지원

2019년 전국 최초 도입...일가정 양립·가족친화문화 확산 유도
기념일 조기퇴근·가족 프로그램 보장...10~24일 참여기업 모집

광주시는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장 30곳을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장의 가족친화문화 정착과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운영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5곳과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곳을 선정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5월 중 지원금 지급 후부터 11월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없이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2시간 이상)'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는 본인 생일, 가족 생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임금 삭감·연차 사용 없이 2시간 이상 조기퇴근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업장은 이와 함께 가족교육·돌봄, 가족 건강 지원, 가족여가 자기 계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중 각 기업의 여건에 맞춰 1개 이상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운영해야 한다.

최종 사업 참여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 실적 보유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있는 기업

은 우대한다.

2021~2025년 5년간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되며, 2020년 이전 수혜기업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12년간 유지한 성평등가족부 인정 가족친화 선도기업은 재지원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자메일(isj4078@korea.kr)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전화(613-7981, 7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의 생산력과 우수 인재 확보 가능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